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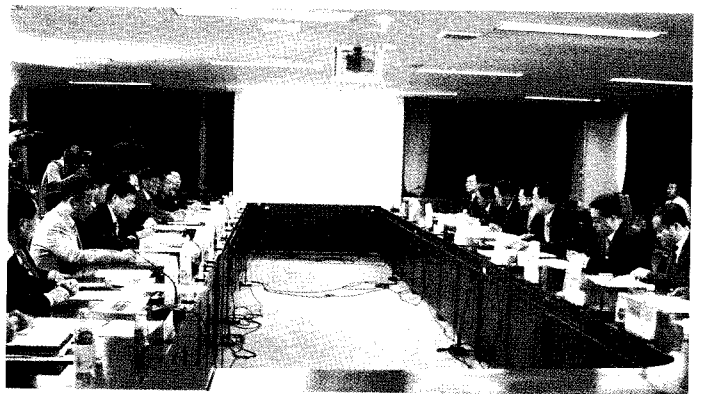
## 고유가 시대에 걸맞게 ESCO 협회장도 바빠 장관 주재 활성화 대책회의 참석, 언론 인터뷰 등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협회 최석곤 회장도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난 8월 중순 산자부 장관이 소집한 ESCO활성화를 통한 고유가 극복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는 물론 ESCO관련 기고를 주요 일간지 등의 지면에 게재해 ESCO의 중요성을 알렸다. 지난 8월 대책회의는 당시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7~39\$로 반등하면서 이 달 19일 산자부 이희범 장관이 소집했다.

이 날 회의에는 최석곤 회장을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케너텍, 뉴그린테크, 이앤이시스템, 금강그린개발, 화인테크, 한국가스기술공업, 하나기연, 삼성에버랜드, SK(주)등 관련기업대표, 한국난방사공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 화승제지 등 에너지사용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날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에너지절약의 최일선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ESCO관계자를 격려하고 ESCO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주도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을 주 업종으로 운영하는 케너텍의 ESCO성공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회의에서 나온 ESCO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원금리 인하(고정금리 인하 5.25%→3.0%결정), 이차보전제 도입 등이다. 또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신규로 7% 투자 세액을 공제하고 내년 1월부터는 10%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기로 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특화된 기술과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 ESCO인증 업체에 적격 심사기준 적용시 가점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우수 ESCO인증 제도도 2006년부터 도입 추진키로 했다.





최석곤 회장은 지난 1일 매일경제와 에너지절약시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및 지원정책, 향후 에너지절약설비 분야의 전망 등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에너지절약시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및 지원책에 관한 협회장으로서의 소견에 대해 최 회장은 "92년 정부 주도로 ESCO제도가 도입된 후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한 뒤 정부자금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산자부 장관과 관련업계가 가진 ESCO활성화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첨언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민간자금 유입 검토 건의, 50억 추경 조속 배정 및 기타 자금지원 방안 강구 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및 기준 개선 건의(주택법, 오염배출기준완화등), ESCO채권의 공익채권화 추진 요망, 신기술 개발 및 해외 신기술 도입 지원 요망, ESCO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홍보 건의 등이다. 또 최 회장은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ESCO 제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며 ESCO의 발전을 위해 ESCO 사업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에너지절약설비 분야의 전망과 관련, ESCO시장의 전망에 대해 최 회장은 "전년도에 비해 ESCO시장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자금규모의 제한성 때문에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자금만으로는 시장 발전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인방안을 발굴하고 적정대안을 찾아야 ESCO시장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절약설비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협약 체제 가동으로 감축목표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증가하며 ESCO산업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100억불 규모의 에너지기술 시장 형성이 예상 된다"며 "에너지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ESCO들이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면 기후변화협약체제가 가동되었을 시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의 기술력(기술, 기술인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고급기술 정보의 입수 및 제공을 강화하고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금 확보, ESCO채권의 공익채권화 등 ESCO사업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 진정한 ESCO 발전의 길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ESCO 종사자가 사명감을 갖고 정력을 쏟아 주었으면 한다"고 업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